

## 전남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1천300대 무상 지원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영업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 올해부터 위치정보제공 기능 추가된 일반단말기도 포함

전남도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총 1천300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난해보다 830대 증가했다. 또한 지문인식 단말기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위치정보 제공 기능

이 추가된 일반 단말기까지 지원한다. 일반 단말기는 4만 3천 원, 지문인식 단말기는 11만 2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전남지역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 명의 차량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하이패스 단말기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영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혜정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료 지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교통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용운기자

###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8곳 선정

선정된 마을엔 총 7천500만원 지원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여성친화마을 공모를 통해 8개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마을은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충장동 여성상인들의 이야기 발굴을 통해 시대별 다양한 여성상을 기록) ▲서구 꿈꾸는 작은도서관(방과후 마을돌봄교실 운영과 아빠놀이지도 코칭) ▲남구 심시일반 나눔마을학교(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배움터 운영)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온마을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광산구 첨단살롱 여문손(마을 주민들이 쉽게 성평등 교육 접하도록 성평등 주제에 맞는 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총 8곳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공개 모집하고 성평등위원회 심의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8개 마을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마을에는 총 사업비 7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유빈기자

광주시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친화마을 8곳을 대상으로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전담활동가를 배치, 맞춤형 상담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성평등한 마을이 모여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해 현재 71개 마을을 발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동구·광산구를 시작으로 2022년 서구·북구에 이어 2023년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5개 자치구가 모두 여성친화마을에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일상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 현대차, 고성능 차량 기반의 ‘아이오닉 5 N eN1 컵 카’ 공개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열린 공식 연습 라운드에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Cup car)'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열린 공식 연습 라운드에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Cup car)'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kW(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

한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레이스 전용 슬릭 타이어를 장착해 주행 성능을 한층 강화했으며 낮고 넓은 스타일의 오버런더 적용과 휠 트래드(윤거)를 넓혀 핸들링 성능을 높이고 프론트 립과 리어 윙을 추가해 공력 성능을 향상했다.

아울러, 경주차의 기본인 경량화를 위해 운전석을 제외한 시트와 카메트 등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하고 단조 휠,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후드와 같은 경량 제품을 활용했으며 내연기관 경주차에 적용하고 있는 필수 안전 사양 외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질식 소화포 등 안전 요소를 추가했다.

이번에 공개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올 시즌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 'eN1 클래스' 전용 경주차 차량이다. eN1 클래스의 'e'는 '전기차(electric)'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아반떼 N 컵(프로급, N1 Class)'

과 같이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기차 레이스를 뜻한다.

eN1 클래스는 '2024 현대 N 페스티벌' 개막전이 열리는 4월 27일 이후 총 5라운드에 걸쳐 10번의 레이스가 진행되며 스프린트[5], 1대1 토너먼트 등 여러 형태의 경주 방식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eN1 클래스 시범 운영을 통해 전기 경주차의 성능을 점검함과 동시에 위급 상황 대응, 차량 정비 및 검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레이스 운영에 관한 전 영역에서의 학습과 개선을 이룰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레이스 전용 차량 공개와 함께 eN1 클래스를 통해 전기차 레이스 플랫폼의 선두 주자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대 N 페스티벌을 비롯한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과 글로벌 확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현대 클릭스피드 페스티벌(2003~2010)'을 시작으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2011~2018)'을 거쳐 '현대 N 페스티벌(2019~)'까지 20년간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회를 지속해서 후원 및 개최해 왔다. /이유빈기자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